**115회 정기대공연 조명 인수인계서**

57기 김소현 정민혁

1. 마음가짐과 준비사항

* 무엇이든지 쉬운 일은 없다. 한 번 해보는 김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연 준비를 하면 좋다.
* 기계나 전선을 잘 다루거나(혹은 다루는 걸 좋아하거나), 무거운 기기들을 옮길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 되면 좋다.
* 높은 곳을 두려워하지않고, 담력이 있다면 매우 좋다.
* 조명 관련 용어 정리

|  |  |
| --- | --- |
| 용어 | 설명 |
| 라인 | 조명과 채널(혹은 콘솔)을 연결시켜주는 선 |
| 딸깍이 | 조명이 작동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라인. 모양은 라인과 비슷하나 중간에 on/off 버튼이 달려있음 |
| 채널 | 원형극장, 소극장 등 교내에 있는 극장들은 콘솔기기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조명과 채널을 연결하면 콘솔을 통해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다. 검은색 바에 적혀있는 숫자들이 곧 채널이다. (ex. 1채널, 2채널, … )  다만 율전 소극장은 배치 되어있는 기기가 없으므로 자체 콘솔을 사용함. |
| 바(bar) | 채널이 적혀있는 막대기를 바라고 함 |
| 대파 |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명의 한 종류. 넓은 영역을 쏠 수 있다. |
| 엘립 |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면 됨. 좁은 영역을 쏠 수 있다. |
| 에어리어(area) | 조명 영역. 어느 조명을 어느 위치에 쏠 것인지를 정할 때, ‘에어리어 잡는다’라고 함 |
| 젤라틴 | 조명은 기본적으로 흰(노란)색 빛이기 때문에, 색조명을 쓰고싶을 경우 젤라틴을 이용해서 조명의 색깔을 바꿔주어야 함. 네모난 셀로판지처럼 생김(보통 대파에 사용한다.) |
| 콘솔 | 모든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기기. |
| 큐시트 | 조명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됨. 어느 대사에 어느 조명을 사용할건지를 적어놓은 것 |
| 조도 | 조명의 밝기 |
| D. I.(Deem in) | 조명을 서서히 키는 것 |
| D. O.(Deem out) | 조명을 서서히 끄는 것 |
| C. I.(Cut in) | 밝기의 변화 없이 조명을 바로 키는 것 |
| C. O.(Cut out) | 밝기의 변화 없이 조명을 바로 끄는 것 |
| 뒤깎이 | 보통 극의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면 기본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명과 음향이 나오는 부분만 빠르게 맞춰보는 것을 뒤깎이라고 함. 공연 전날 무대설치 후에 진행됨 |

1. 조명 제반사항 파악

* 공연준비에 앞서, 각 캠퍼스에 조명과 조명관련기기가 몇 개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율전에 있는 대파와 엘립은 각각 몇 개인지, 그 중 작동되는 대파와 엘립은 몇 개인지(이 때 딸깍이를 이용해서 조명 작동의 유무를 확인함), 그리고 명륜 또한 총 몇 개의 조명이 있고 몇 개가 작동하는지를 조사해야 함. 작동되는 라인도 몇 개인지 파악해두면 좋다.
* 조명기기들이 워낙 오래되어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다. 무대 설치 시 작동하지 않는 라인들이나 조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대본분석 및 큐시트 작성

* 극대본이 나오면 조명팀은 대본분석 후에 큐시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매 공연 때마다 연출진의 스타일이 다르므로 연출진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큐시트를 작성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어느 조명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는 연출진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명팀이 우선 작성한 후에 피드백을 해주는 연출진도 있다.)
* 큐시트는 첨부된 파일을 보면 어떻게 작성해야 될 지 감이 올 듯
* 보통 대본분석과 큐시트 작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대본분석+큐시트작성 후 연출진의 피드백을 받고 나면 모두 갈아엎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큐시트 작성 전에 어느 부분에 어느 조명을 쓰면 좋을 것 같은지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한 후에 연출진과 회의 후 큐시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큐시트 작성 전후로 조명을 몇 개 사용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성균극회의 경우 엘립과 대파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조명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 또한 연출진의 확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명팀 내에서 몇 개를 쓸 것인지 논의한 후 연출진에게 확정 받으면 된다. 극에 색조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색을 쓸 것인지도 대충 생각해놓으면 좋다. 젤라틴이 다 오래된 것들이라 원치 않는 색깔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을 쓸 것인지는 미리 정해놓아야 된다.

1. 조명 수리 및 설치 준비

* 115회 공연의 경우, 동방 내에 있는 작동되는 대파/엘립 만으로 공연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조명을 수리해야 했다. 을지로/청계천 쪽에서 조명 부품을 사오거나 아니면 조명을 직접 들고 가서 수리해와야 한다. 일반 인테리어 조명가게는 우리가 원하는 조명을 팔지 않으니 패스하면 된다. 좀 후미져 보이는 가게들에서 부품들을 판다. 대파의 전구랑 엘립을 수리한 곳은 을지로 4가 1번출구에서 한 5분정도 걸으면 찾을 수 있는 미래 특수 조명에서 했고, 명륜원형극장에서 공연하기위해 필요했던 비절연 원형압축단자는 청계천 4가 버스정류장 쪽에 있는 우신전기라는 곳에서 구매했다. 큰 길가보다는 골목에 들어가면 있는 가게에 가서 사면 된다. 또한 청계천 쪽으로 가면 조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백화점들이 있다. 잘못하면 2시간동안 가게마다 들어가면서 특정 물품을 취급하는 지 물어보는 경우도 생긴다. 선배들과 같이 갈 걸 추천한다.
* 기타 조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115회 공연의 경우에는 그림자 인형극을 하는 부분이 있어 샤막 뒤에 쏠 조명이 필요했다. 백열전구는 밝기가 강할수록 쉽게 깨져 적당하지 않았고, led조명의 경우는 밝기가 너무 약해 쓰지 못했다. 결국에는 극회 내에 있는 영상학과분의 도움을 통해 텅스텐조명을 빌려서 사용했다. 기타 조명들이 필요할 때마다 조명을 살 수 없는 노릇이니 영상학과나 다른 지인을 통해 조명을 빌리면 좋다. 정 안되면 그냥 사라.
* 115회 공연은 율전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린 후 그 다음 주에 명륜에서 공연을 올렸다. 그런데 율전 소극장의 경우 콘솔기기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극회 내에 있는 콘솔기기를 써야 했다. 극회 내에 있는 콘솔은 조명과 직접 연결해서 써야 하는데, 콘솔기기와 조명을 직접 연결할 경우 ‘라인 변환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라인은 양 끝에 네모난 플라스틱 모양의 것이 달려 있는데, 한쪽 부분의 플라스틱을 해체해야 한다. 해체한 부분을 돼지코 모양(아마 110v)의 어댑터로 연결하여 그 어댑터를 콘솔기기에 연결하면 된다. 명륜에서는 극장 내에 콘솔기기가 비치되어 있어 돼지코어댑터를 다시 원래 라인의 모양으로 변환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때 ‘터미널단자’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신전기’라는 곳에서 팔고 있으니 거기서 사면 된다. 장소는 청계천 4가 쪽이었다. 그리고 라인 변환 작업 시 적어도 2-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조명팀 내의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연진이나 다른 극회분들에게 부탁해서 작업할 것!
* 극회 내에 있는 콘솔을 사용할 경우, ‘퓨즈’라는 것을 미리 구비해놓으면 좋다. 가끔 조명도 잘 작동 되고 라인도 아무 문제 없는데 조명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콘솔의 채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채널마다 퓨즈가 1개씩 들어가는데 작동하지 않는 채널의 퓨즈를 갈아주면 대부분은 다시 잘 켜진다. 현재 퓨즈의 여분은 율전동방에 15개 정도 있다.
* 공연 전날 보통 무대설치를 위해 철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공연진이 아닌 분들도 같이 오셔서 작업하는데, ‘조명설치’를 도와줄 인력을 꼭!!!!!!!!!!!!!! 미리 구해놔야 한다. 대부분 무대팀 설치작업을 도와주기 때문에ㅠㅠ 조명은 항상 인력난이 생긴다. 기획님께 인력 구해주실 수 있는지 미리미리 물어보자. 적어도 설치 3일 전에는 구해놓아야 한다. 또한 조명작업의 특성상 조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는 힘들지만 구하지않으면 그 어려운 작업을 매우 소수의 사람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다.

1. 조명 설치 및 철거

* 사실 조명설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잘 된다. 기본적인 조명설치 방법보다는 115회 공연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써보도록 하겠다.
* 명륜(원형극장)
* 돼지코로 바뀌어있던 라인을 다시 원래 라인으로 미리 변환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무대설치 당일에 변환작업을 시작해서 설치가 늦어졌다. 터미널단자가 필요한 것도 몰라서 중간에 나가서 사오느라 더 늦어졌다. 이 것 때문에 약 2시간정도의 지체가 생겼다. 그래도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찍 끝낼 수 있었음.
* 바(bar)가 무대 바로 위에 있어 조명을 쏘기에 적절한 위치가 아니었다. (보통 조명은 관객석 쪽에서 무대 쪽을 쏴주어야 빛을 잘 받음)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채널에 라인을 꽂아 그 라인을 관객석 뒤로 끌어와서 천장에 매단 조명과 연결시켜 사용했다. 처음에 라인을 끌어와서 뒤에 있는 조명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연출님(조명 잘 아시는 분이었음)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그래도 어찌어찌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작업을 마무리 하기는 했다.
* 설치는 생각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은 미리미리 해치워놓자. 라인변환 작업이라던가, 조명 및 라인 수리라던가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꼭 미리하자.
* 원형극장의 경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조명을 달아야 하는데, 사다리가 적어도 2개 있으면 좋다. 극회에서는 사다리가 1개밖에 없어서 능라촌에서 빌려왔다.
* 조명을 달아놓기만 하면 라인들이 지저분하게 널부러져 있어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케이블타이를 이용해서 묶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케이블타이를 너무 꽉 조여놓으면 철거할 때 제거하기 힘들다.. 적당히 조여주자.
* 율전(소극장)
* 율전소극장의 경우에는 설치와 해체시에 꼭 바를 타야 한다. 여기서 바란, 천장에 달려있는 주황색의 구조를 의미한다. 바를 타려면 극장 오른편에 위치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바의 위는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 매우 먼지가 많아서 미끄럽다. 따라서 꼭 목장갑을 끼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길 바란다. 또한 철야시엔 최대한 먼저 올라가서 바 위에서의 끝낼 것을 추천한다. 졸릴 때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으면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 (말그대로)죽는다. 정 못했다면 좀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하자.
* 이번 115회 정기대공연에서 스텝 중 남자가 조명에 1명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바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였고, 설치해야 하는 조명의 개수 또한 15개로 매우 많아서 일을 아예 잠을 못 자고 설치를 했던 것 같다(이때 선배 한 분이 도와주셔서 둘이서 설치를 했는데, 만약 선배가 없었더라면 그 날 공연을 포기했어야 했다.). 해체 또한 혼자 해야했기 때문에 뒤풀이에 케스트 보다 2시간 정도 늦게 갔던 걸로 기억한다. 꼭 바를 탈 수 있는 선배들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해 놓길 바란다. 또한 최소한 조명팀에 남자가 2명은 되어야 한다.
* 율전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시작하기 때문에 에어리어 수정이 매우 잦다. 이때 에어리어 수정은 바를 타고 위에서 조명을 만지면서 조명의 에어리어를 수정하는 것인데, 몸의 자세를 많이 낮추고 두 손을 다 써야함으로 매우 위험하다. 바 타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 보통 한다. 이번공연엔 조명도 많고 연출진의 요청도 좀 많아서 10번정도 바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다. 정말 체력이 부족해서 못 할 정도까지 가니까 미리미리 체력 비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 율전 공연때 라인변환작업과 라인 보수작업을 혼자 했었다. 또한, 고장 난 조명을 전구를 갈고 구리선 연결하는 것을 혼자 했었다. 대관시간 5시간 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대관 이후 조명설치 시작까지 약 3시간정도의 딜레이가 생겼다. 이런 일들은 다른 극회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빠르게 해결하고 조명 설치를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다.
* 조명이나 라인 설치시(라인을 딴다고 한다.) 두 손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않다. 허나 라인해체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떨어지지않게 주의해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해결해야한다. 또한 조명은 회색 쇠막대에 하는 것이지 절대 주황색 바에 하는 것이 아니다. 라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늘어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그 옆에 지지대 쪽에 묶어가면서 라인을 따야 한다. 다만 너무 많이 묶으면 해체시에 다시 다 풀어야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인을 딸때에는 묶음을 들고 올라가 라인을 딸 곳까지 간 다음 묶은 후에 풀면서 내려오는 것이고 라인을 해체할 때에는 딴 곳에서 풀고 정리하면서 가져오는 것이다.